

〈對論 2〉

2/ 아시아주의자의 원상(原像)

나카노 세이고(中野正剛)¹⁾의 경우*

마쓰모토 겐이치



마쓰모토 겐이치(松本健一) 일본의 평론가이자 작가, 사상가, 역사학자. 도쿄대학 경제학부 졸업 후 호세이대학 대학원에서 일본 근대문학을 전공. 교토 세이카(精華)대학 및 레이타쿠(麗澤)대학의 교수와 레이타쿠대학 비교문명문화연구센터장을 역임. 근대 일본의 정신사와 아시아문화론을 중심으로,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재구축을 지향해 현대 일본사회와 정치에 대한 시평을 하고 있다. 『泥の文明』, 『畏るべき昭和天皇』, 『司馬遼太郎を詠む』 등 100여 권의 저서가 있으며, 『近代アジア精神史の試み』(1995)로 아시아·태평양상을, 『日本近代 1: 開國・維新』(2002)으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상을, 『評伝 北一輝』(전 5권, 2005)로 마이니치(毎日)출판문화상을 수상했다.

* 원고의 일부는 『『高級な日本人』の生き方』(新潮社, 1999)에 수록되었던 『아시아주의자의 원상』(アジア主義者の原像)으로, 이를 필자가 가필해 나카노 세이고(中野正剛)를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1. 일본의 아시아주의

근대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유럽 제국주의의 질곡에서 아시아를 해방하려는 사상이었는가, 아니면 구미 제국주의를 모방한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를 침략하면서 구미 열강에 대항하려 한 사상이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일본의 아시아주의자들이 살아간 시대와 그들이 아시아에 대한 어떠한 지식과 체험으로 아시아를 침략한 근대문명의 ‘힘’(power)을 인식했는가를 상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근대 일본의 대표적인 아시아주의자인 기타 잇키(北一輝)²와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 1886~1957),³ 나카노 세이고(中野正剛)는 모두 우익으로 불리어왔다. 그들은 분명 내셔널리스트였지만 결국 천황교였던 일본 우익을 넘는 존재로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도 받았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좌익과 같은 마르크스교(敎)도 되지 않았고 일본 제국주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기타 잇키의 경우 주로 중화문명으로부터의 지식과 그가 체험한 중국의 신해혁명(1911) 및 일본 제국주의의 ‘대중국(對華) 21개조의 요구’(1915)에 대한 비판을 통해 그 아시아관의 틀이 구축되었다. 기타는 자신의 저서 『지나 혁명외사』(支那革命外史, 1916)에서도 표명하는 바와 같이 대영제국의 제국주의를 적으로 간주했지만 민주주의 미국을 적대시한 적은 없었다. 미국은 오히려 일본이 제후해야 할 상대로 인식했다.

이에 비해 오카와 슈메이의 아시아관은 주로 인도문명의 지식과 그 인

1 나카노 세이고(中野正剛, 1886~1943): 다이쇼·쇼와 시대의 사상가, 정치가.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기사를 거쳐 1920년 중의원의원 당선(8회). 동방회(東方會) 결성. 전시하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내각 타도 운동을 일으켜 체포, 석방 직후에 할복자살했다(원주).

2 기타 잇키(北一輝, 1883~1937): 다이쇼·쇼와 시대의 사상가·사회운동가·국가사회주의자. 메이지 유신의 본의는 민주주의임을 주장해 메이지헌법의 천황제 비판. 이 주장에 감화된 젊은 장교에 의한 2·26 사건으로 특설 군법회의에서 사형됨. 『유신혁명』(維新革命), 『국가개조』(國家改造) 등의 저서가 있다. (이하 각주는 모두 번역자에 의함)

3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 1886~1957): 일본의 사상가, 국가주의자. 도쿄대학 졸업 후 만철(滿鐵)근무. 호세이(法政)대학 교수 역임. 근대 일본의 서양화에 대결해 정신면에서는 일본주의, 내정 면에서는 사회주의 혹은 통제 경제, 외교면에서는 아시아주의 제창. 제2차 세계대전 후 A급 전범으로 기소되었다. 『근세구라파식민사』(近世歐羅巴植民史) 등의 저서가 있다.

도를 침략한 대영제국에 대한 인도 독립운동에의 공감에 의해 조형되었다. 그의 아시아주의는 영국 제국주의를 적으로 인식했으며, 동시에 필리핀을 식민지로 한 미국 제국주의도 적으로 간주했다. 오카와의 저서 『부흥 아시아의 제문제』(復興アジアの諸問題, 1922)는 인도나 중국뿐만 아니라 무스타파 케말·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ürk)에 의해 유럽 제국주의 열강에서 독립한 터키까지 시야에 넣은 것이었다.

한편 나카노 세이고의 경우는 일본의 ‘우익 보스’(竹内好, 『日本のアジア主義』)로도 불리는 도야마 미쓰루(頭山滿)⁴의 영향 하에 성장하면서도 서양 근대 문명을 대표하는 영국에 직접 건너간 경험도 있다. 나카노는 그 영국 여행을 근대 서구의 ‘자유’나 의회제도, 민주주의를 직접 배워올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 여행은 그에게 영국 제국주의에 의한 아시아 침략의 실태에 눈뜨게 했다. 여행 중에 나카노는 일본 아시아주의자의 원류로 자리매김되는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⁵의 ‘아시아는 하나’라는 말을 아시아는 ‘굴욕’에 있어서 하나라는 의미로 실감했던 것이다.

이 글은 그러한 나카노 세이고라는 아시아주의자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 일본의 아시아주의란 무엇이었는가를 검증하려는 시도다.

2. 국가는 어떻게 망하는가?

1943년 10월 27일, 우익단체인 동방회를 주도한 나카노 세이고가 자결했다. 그 해 1월 1일, 나카노가 당시의 수상 도조 히데키를 비판한 ‘전시재상론’(戰時宰相論)을 발표하고, 과달카날(Guadalcanal)에서의 일본 패배를 공공연히 입

4 도야마 미쓰루(頭山滿, 1855~1944): 메이지에서 쇼와 전기에 걸쳐 활동한 아시아주의자의 거두. 결사인 현양사(玄洋社)를 창설해 일본의 민간 국가주의 운동을 주도했다. 국권의 신장, 대륙진출을 주장해 정계의 막후 인물로 활약했다.

5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 1862~1913):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문인·미술계의 지도자. 도쿄미술학교 교장이었으며, 일본 미술원을 창설했다. 미국 보스턴미술관 동양부장 역임. 미술사, 미술평론가로서 미학연구의 개척자로 알려져 있다. 저서에 『東洋の理想』, 『日本の目覺め』 등이 있다.

에 담았기 때문에 도조에 의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나카노의 ‘전시제상론’이 오늘날에도 퇴색하지 않는 명문인 것은 다음의 핵심 부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는 경제에 의해 망하지 않고 패전에 의해서조차 망하지 않고 지도자가 자신을 상실하고 국민이 귀추(歸趨)에 헤매는 것에 의해 망하는 것이다.

이 도조 비판의 논설에는 보편적인 지도자를 지향하는 내용이 함축되었다. 현재의 정치가들에게 위의 인용 대목만이라도 건네고 싶을 정도다.

한편 나카노 세이고가 2·26 사건의 주인공인 기타 잇키와 서로 친구 사이였던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1936년 2·26 사건⁶ 발발 무렵 기타는 1919년 말에 중국에서 귀국한 이래 17년 만에 또 다시 중국으로 건너갈 계획을 세웠다.

그 때문에 기타는 나카노가 전년도인 1935년 중국에 건너간 장제스(蔣介石, 총통)와 회견할 무렵, 신해혁명 때의 동지였던 국민당의 장쑤(張群, 외교 부장=외무대신)에게 보내는 도항 타진 서한을 맡겼다. 장쑤는 참모총장 허잉친(何應欽, 이후 행정원장=수상)과 함께 장제스의 양팔로 불렸다. 기타는 이 중국행에서 장쑤를 만나 만주사변 이래 지속된 중일 간의 대립을 타개하기 위해 일미(日美)재단을 만들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기타의 계획으로는 1936년 3월에 난징(南京, 국민정부의 소재지)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중국으로의 도항이 1개월 전에 실현되었다면 중일 간의 대립이 해소되었을지의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기타는 2·26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모면했을 것이다.

2·26 무렵의 ‘경시청 청취서’(警視廳聽取書)에 따르면 기타의 중국도항은 다음과 같은 예정과 순서에 의해 진행되었다. 기타는 말한다.

6 1936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에 걸쳐 일본 육군 황도파(皇道派)의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들이 약 1500명의 부대를 이끌고 국가개조·통제파 타도 등을 내건 쿠데타다. 군과 정부는 ‘반란군’을 진압해 주모자를 총살형에 처했다. 이후 숙군이라는 명분 하에 군부의 정치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작년 쇼와 10년(1935년) 7월 ‘대중국 투자에서의 일미재단의 제창’이라는 건백서는 자신으로서는 일중동맹의 제창에 미국의 재력을 더해 일중 및 일미 간을 절대 평화에 두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중국에서는 나의 20년 이래의 맹우 장쑨 씨가 외교부장 지위에 올랐으므로 나는 이 3월에는 오랜만에 중국에 건너 가려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지쓰카와 도키지로(實川時治郎), 나카노 세이고 씨 등이 중국에 간 기회에 단순한 소개 이상으로 깊이 있는 회동을 해오도록 조처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나는 작년 가을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 외무차관과 장시간 협의했습니다. 또 히로타 고키(廣田弘毅) 외상과 나가이 류타로(永井柳太郎) 군과의 사이에도 나의 지나도항 시기에 대한 상담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연말연시가 되고 다음에 총선거[쇼와 11년(1936년) 2월 20일] 등이 있었으므로 3월에 도항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타의 진술은 나를 여러 가지 상념에 잠기게 한다. 예를 들면 뒤에 『쇼와의 동란』(昭和の動亂, 1952)을 쓴 시게미쓰 마모루는 여기에서 기타에 대해 “그는 타고난 혁명가로 음산한 계획실행가였다”라고 썼다. 그렇다면 한다면 1936년 당시 외무차관이었던 시게미쓰가 진심으로 ‘일중동맹’ 문제를 기타에 기대했는지의 여부는 자못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또한 기타가 나카노 세이고와 함께 나가이 류타로를 친우로 여기게 된 것은 1917년 때부터였다[미쓰카와 가메타로(滿川龜太郎) 앞 서한 ‘베르사이유 회의에 대한 최고 판결’].

그러나 이에 관한 것은 기타 잇키의 평전에 속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나카노 세이고가 1935년에 중국에 건너갔을 때, 기타가 장쑨 앞으로 보낸 서한에 관계했던 것으로 화제를 돌린다.

나는 25년 전 아직 살아있던 장쑨에게 그때의 기타 잇키의 편지가 남아 있는지 문의한 적이 있다. 답은 없었다. 뒤에 타이완의 국민당사 편찬위원회에 이에 대해 말했더니 “장쑨 씨가 소장했던 사료는 일단 전부 국민당에 기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답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다만 그 사료는 방대한 것이므로 아직 거의 손도 대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라고 회

답했다.

그것이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에피소드가 표명하는 바와 같이 기타와 나카노는 1935년 당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그 때문에 기타는 1937년, 2·26 사건의 ‘수괴’로서 총살형에 처해지기 전에 나카노 세이고에게 영원한 이별의 편지를 쓴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두 사람의 친교를 밝히는 에피소드가 오가타 다케토라(緒方竹虎, 전후의 자유당 총재, 나카노의 초등학교 시절 이래 친구)의 『인간 나카노 세이고』(人間中野正剛, 1951)에 나온다. 이 책에는 나카노의 「정신차려라, 아버지」(1931)라는 글이 수록되어 있다.

「정신차려라, 아버지」는 나카노 세이고가 자신의 장남 가쓰아키(克明, 17세)를 마에호타카다케(前穂高岳) 등산 조난으로 잃고서 비통해하는 애도문 혹은 고백문이다. 여기에 나카노 저택에서 이루어진 27기(忌)에 즈음한 기타 잇키의 발언이 나온다. 27기의 밤, 나카노는 이전 가쓰아키와 함께 축음기로 보사쓰비와(菩薩琵琶)의 〈혼노지〉(本能寺)를 들었을 때의 추억을 이야기했다.—그때 나는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혼노지에서 미쓰히데(光秀)의 모반(謀叛)을 듣고도 “너희들, 각오”하고 외치며 조금의 약한 기색도 보이지 않고 당황하지도 않았던 것은 “통쾌하지 않나. 매우 강한 기가 충만해 있어. 무인으로서의 품격이 높지”라고 말했어. 그러자 나이 어린 가쓰아키는 “그런 정도에 울상이 될 여유가 있는 겁니까?”하고 웃으면서 대답했지. 그랬던 가쓰아키는 마에호타카다케에서 미끄러져 추락해 심한 중상을 입어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 치료할 때에도 부모를 부르고 싶었을 텐데 계속 참은 거야. 그 아이에게 자신은 ‘정신차려라, 아버지’라는 엄격한 전보를 치고 자상한 목소리조차 들려주지 않은 거야. 어찌 이토록 어리석은 아버지일까. 이러한 이야기였다.

그때 기타 잇키가 ‘엄숙하게’ 말했던 것이다.

나카노 군 그만두게나,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⁷가 미나토가와(漆川)에서 아들 마사쓰라(正行)를 안고 울부짖는다면 어떻겠는가. 자네의 종래 교육은 나

쁘지 않아. 노부나가를 구실로 삼은 혼계 등도 ‘정신차려라, 아버지’도 모두 남성적 자애의 자연스런 표현이야. 이 엄숙한 아버지를 몽환 중에 품고 있으니까 가쓰아키 군은 중상을 입어도 아프지 않은 것일세. 자네의 남성적 자애는 아이를 사랑해 아픔을 느끼게 하지 않았던 것이야. 심지어 전두부는 깨지고 이도 부러지고 두개저골은 부러져 내출혈이 많았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제 아픔을 느끼는 기력도 쇠약해졌을 터, (가쓰아키 군이) ‘그만둬’ 하고 말하고 방관한 것도 과거의 단련된 잠재의식이 돌연 환각 중에 발로된 것이네. 이 정도의 기운이 있다면 아프지도 않은 것이야. ‘정신차려라, 아버지’ 그것이 나카노 세이 고다운 사랑하는 자식[愛兒]에 대한 인도가 아닌가. 아들은 자네에게 감격하고 있어.

여기에서 기타 잇키가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나카노여,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마라’라는 것이다. 물론 이 내용은 나카노의 기억 속에서 기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역시 기타의 사상과 체취가 배어 있다.

결국 기타는 나카노가 도움을 구했을지도 모르는 어린 자식에게 엄격한 말을 내뱉은 어리석음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자네의 그것은 “남성적 자애”였고 ‘정신차려라’라는 전보도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인도”가 되었다고 자식의 죽음에 뉘을 잃은 벼를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한 기타의 위로, 혹은 격려에 대해서 나카노 세이고는 그가 말하는 ‘규슈 남자다운’ 기개를 되찾으려 한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 허세를 부리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자후의 자세가 나카노 세이고를 세이고답게 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도조 정권의 탄압에 맞서 죽음을 선택하게 한 그의 기개일지도 모른다.

7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1294~1336): 가마쿠라(鎌倉)시대에서 남북조 시대의 무장(武將). 1331년 고다이(後醍醐) 천황의 부름에 응해 병사를 일으켜 막부의 대군과 싸워 수호직에 올랐다. 그 뒤 미나토가와(湊川)에서 규슈(九州)의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의 군과 싸워 패사. 마사쓰라(正行)는 마사시게(正成)의 장자다.

아무튼 나카노 세이고는 이러한 기타의 말에 다음과 같이 애도문을 종결한다.

(기타의 위로에 대해서) 과연 그러할 것이다. 어리석은 아버지는 본연의 아버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원래의 엄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산의 희생자를 슬퍼하고 이것에 대한 분노를 문필로 토해냈던 것에 대해서도….

일만 척의 험한 봉우리, 파랗고 높은 주변, 영원히 젊은 모습을, 현세의 기억에 표해 멀리 승천해 간 가쓰아키는 매우 통쾌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아이라면’하고 말한다. 그 아이는 저돌적으로 맹진,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 나도 같은 각오로 ‘가쓰아키의 아버지라면’ 하고 남은 수명 동안 전투하듯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만약 영혼이 있다면 가쓰아키는 ‘정신차려라, 아버지’ 하고 예의 그 유머조로 앵무새처럼 질타했을 것이다.

문장가로서의 나카노 세이고의 독특한 자세가 나타나는 것은 “나도 ‘가쓰아키의 아버지라면’ 하는 같은 각오로 남은 수명 동안 전투하듯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기개를 나타낸 후반부일 것이다. 결국 먼저 아들을 보낸 엄한 아버지의 ‘정신차려라’하는 전문을, 이번에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머조로 “앵무새처럼 질타했을 것”이라고 되뇌는 대목이다.

나카노 세이고는 나가이 류타로, 쓰루미 유스케(鶴見祐輔)와 함께 웅변가로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웅변은 후천적 노력에 의한 것 같다. 그러나 위의 인용 부분을 읽으면 문장가로서 타고난 천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3. 『영고일기』(靈告日記)의 기묘한 기술

나카노 가쓰아키의 27기 에피소드를 읽고 나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이 있다. 기타가 1929년부터 1936년까지 대략 8년에 걸쳐 기술한 『영고일기』(靈告日記)의 한 소절이다. 『영고일기』는 신불의 계시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것이 ‘기타의 카리스마적인 인격과 독특한 사상이나 몽상의 산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신조』(新潮) 46, 1986년 4월호에 해설 기술].

7월 26일 아침경(법화경의 독경)

왼쪽에 높은 산 있음. 산 흐물흐물 녹는 모양

이 『영고일기』의 기술은 그로부터 10일 정도 전인 7월 17일에 나카노 가쓰아키가 마에호다카타케의 등산 중 암벽이 무너져내리면서 미끄러져 32시간이나 버틴 끝에 마침내 이튿날인 18일에 사망한 사실을 알고 나서 쓴, 조난에 상응한 대목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견딜 수 없다.

왜냐하면 나카노 저택에서 이루어진 가쓰아키의 첫 칠기(七忌, 7월 24일)에 모인 등산 동행자들의 이야기에서 나카노 세이고는 가쓰아키의 추락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9시 25분, 데라오카(寺岡)가 앞서나가고 고시(越)가 이를 따랐다. 암석 하나를 넘어 다음 발판에 도착한 고시 군은 가쓰아키를 돌아보았다. 가쓰아키는 멋지게 암석 위로 기어오른 기쁨으로 희심의 미소를 띠었다. 고시가 돌아서서 나가려 한 찰나, 암석이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고시가 뒤돌아보았을 때, 가쓰아키가 올라선 대암석의 아랫부분이 붕괴하기 시작해 이미 기울고 있었다. 가쓰아키는 이때 비장하고 침통한 얼굴로 다음의 암석으로 날아 옮겨갔다. 불행하게도 앞의 암석 하층이 붕괴하자 잇달아 다음의 암석 하층도 흔들려 다다미 1조 정도의 거암은 순식간에 기울기 시작했다. 가쓰아키는 암석을 피하면서 공중제비하듯 추락했다….

나에게는 이 암산의 붕락(崩落)에 의한 가쓰아키의 낙반·추락 장면과 기타의 『영고일기』의 “산 흐물흐물 녹는 모양”의 기술은 상호 조응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나카노 세이고가 가쓰아키의 산 동료로부터 그 장면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7월 24일이고, 기타가 위의 기술을 적은 것이 7월 26일이

다. 『영고일기』는 기타가 아침결에 독경을 한 뒤에 그 무렵의 신불의 계시나 전날 밤의 꿈을 적어놓는 것이 통례다. 그렇다면 이 “산 질척질척 녹는 모양”은 신불의 이름이 기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5일 밤중에 본 꿈이라는 것이 된다. 이것은 24일 밤 초칠기의 이야기와 시간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이 오가타 다케토라의 『인간 나카노 세이고』에 실린 에피소드로 인해 기타의 『영고일기』의 수수께끼 하나가 풀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4. 미기(美機)를 친다면 영기(英機)도 쳐라!

그런데 나는 왜 1951년에 간행된 『인간 나카노 세이고』라는 책을 지금 읽어 보려 한 것일까?

이 책 자체는 내가 1960년대 다른 나카노 세이고에 관한 책과 함께 도서관에서 손에 넣은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나카노 세이고라는 인물에 그다지 강렬한 관심이 일지 않았고, 그의 동방회가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모방하여 파쇼 운동화한 것 등도 작용해 자세한 탐구까지는 좀처럼 이르지 않았다. 물론 기타 잇키의 사상도 나에게서는 파시즘=혁명 운동으로 요약되었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나카노 세이고에 대한 관심이 소멸한 셈은 아니었다. 동방회의 파시즘=혁명 운동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1989년 무렵, 야스오카 쇼타로(安岡章太郎, 소설가)의 『나의 쇼와사』(私の昭和史, 1984)를 읽었을 때였다. 야스오카는 여기에 과달카날에서의 고전(苦戰)이 전해진 ‘대동아전쟁’⁸ 중인 1942년 말경의 동방회의 파시즘=혁명 운동을 — 그는 당시 게이오(慶応)대학의 히요시(日吉)에 재학 중 — 다음과 같이 적었다.

8 이 글의 필자는 학술적 용어로 정착된 ‘아시아·태평양 전쟁’이란 용어가 아닌 ‘대동아전쟁’이란 당대의 역사적 용어를 택하고 있다. 편집위원회는 필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작은따옴표(‘ ’)를 붙여 사용하기로 했다.

요코하마에 한하지 않고 발 닿는 곳곳의 거리에 염전(厭戰) 기분은 그 즈음부터 드디어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미기(美機)를 친다면 영기(英機)도 쳐라!’

우익단체의 이름으로 된 이런 뼈라가 히비야(日比谷)공원에서 유라쿠초(有樂町) 일대에 걸쳐 육교 밑 벽 등에서 눈에 띄게 된 것도 그 무렵부터다. ‘영기’는 물론 도조 히데키를 가리키는 것으로 도조 수상의 인기는 어디를 가든 최악이었다.

야스오카가 여기에서 소개한 “미기(美機)를 친다면 영기(英機)도 쳐라!”는 영국 군기에 비유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를 비판한 뼈라로서 나카노 세이고의 동방회가 붙인 것이었다. 직접적으로는 1942년 12월 21일의 히비야 공회당에서 행해진 미국의 군기에 대한 나카노 세이고 연설회 때의 것일 터이다. 그는 이 연설에서 전국(戰局)의 악화를 지적하고 도조 지배에 의한 군관료 통제(헌병정치)의 실패를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나카노는 이듬해인 1943년인 1월 1일 『도쿄아사히신문』에 「전시재상론」이란 기사를 기고했다(이 기사로 인해 『도쿄아사히신문』은 발매 금지되었다). 이로 인해 나카노는 도조 정권으로부터 ‘일대적국’(一大敵國)시 되었던 것이다. 나카노가 동방회의 회원에게 ‘일본은 패한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죄목이나 어느 황족 앞에서 도조의 시정을 매도한 것이 불경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결국 검거의 구실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아무튼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야스오카의 『나의 쇼와사』를 읽고 나는 다시 나카노 세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젠가 전부 모아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10년이 훌쩍 지나가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그 5년 후 천더런(陳德仁)·야스이 산키치(安井三吉)가 편집한 『쑨원·강연 ‘대아시아주의’ 자료집』(孫文·講演「大アジア主義」資料集, 1989)이라는 책이 나왔다. 이것은 아시아주의라는 사상을 생각하는 경우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는 쑨원의 강연 ‘대아시아주의’를 둘러싼 자료집이다. 쑨원이 고베(神戸)에서 강연한 것은 베이징(北京)에서 급서하기 겨우 4개월 전인 다이쇼

13년(1924년) 11월 28일이었다.

이 강연의 의미에 대해서 과거 다케우치 요시미가 『아시아주의』(アジア主義, 1963)의 해설 「일본의 아시아주의」에서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그 해설의 핵심 부분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924년의 강연은 제목이야말로 ‘대아시아주의’이지만 실은 대아시아주의의 절망을 호소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비난한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는 쑨원의 ‘대아시아주의’라는 강연에 깊이 파고드는 것은 피한다.⁹ 그것보다도 이 쑨원의 강연에 대한 일본에서의 파문 쪽이 지금은 중요하다. 그 파문 가운데 천·야스이의 두 편자가 가장 주목한 것은 일본 잡지에 실린 논문으로 니주로쿠 미네가이시(二十六峰外史)의 「쑨원 군의 왕래와 아세아 운동」(孫文君の去來と亞細亞運動)(『아관』(我觀), 1925년 1월호)이라는 것이 있다.

편자인 야스이 산키치(고베대학 교수)는 해설인 「강연 『대아세아 문제』의 성립과 그 구조」(講演 ‘大亞細亞問題’の成立とその構造) 중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미야케 세쓰레이(三宅雪嶺)의 『아관』에 실린 니주로쿠 미네가이시의 「쑨원 군의 왕래와 아세아 운동」은 주목해야 할 시점을 갖는다. 후지이 쇼조(藤井昇三)씨는 “일본 측에서도 쑨원 강연 직후에 여기에 어느 정도 정확한 평가를 이루어낸 것이 근소하게나마 존재했다”[『쑨원의 연구』(孫文の研究), 勁草書房, 1966]라고 하면서, 이 논문을 예시하고 있다. 도야마 미쓰루에 대한 평가가 후하기는 하지만 쑨원 및 그의 대아시아주의 평가는 매우 예리하며, 먼저 쑨원과 일본의 ‘소위 대아세아주의자’와는 “입론의 근거를 전혀 달리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인용부분은 73쪽에 후술한다)

9 자세한 것은 松本健一, 「靈に立つ―頭山滿の『場所』」, 『文學界』 9~11月号, 1998 참조.

나도 야스이 미요시나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후지이 쇼조와 같이 『아관』에 실린 니주로쿠 미네가이시의 「쑨원 군의 왕래와 아세아 운동」이라는 논고가 갖는 사상적 명석함과 문장력을 높게 평가한다. 그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이것을 읽었을 때 나는 이 논문이 장년의 나카노 세이고에 의해 쓰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휩싸였다.

우선 그 사상적 명석함과 문장력에 비범함을 느끼는 한편, 미야케 세쓰레이가 나카노 세이고의 장인에 해당하는 것, 또한 『아관』은 세쓰레이와 37세의 나카노가 창간한 잡지(1923)인 것, 또한 니주로쿠 미네가이시라는 펜네임은 라이 산요(賴山陽)의 산주로쿠 미네가이시(三十六蜂外史)를 모방하지만 그 라이 산요[『일본외사』(日本外史)]는 젊은 나카노 세이고가 가장 애독하는 것이었다는 점 등을 떠올렸다.

그리하여 쑨원 등이 신해혁명을 성공시켜 중화민국을 수립했을 때 이를 축하하기 위해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도야마 미쓰루 일행이 중국으로 갔는데, 『아사히신문』 기자 나카노 세이고가 동행했던 것 등도 나는 더붙어 상기했다.

그러한 상황 증거를 생각한 나는 「쑨원 군의 왕래와 아세아 운동」의 필자가 나카노 세이고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다. 그래서 4남 야스오(泰雄)가 쓴 『아버지 나카노 세이고 전』(父 中野正剛伝, 1958)을 위시한 글을 정리해 읽어보기로 한 것이다. 이후 오가타 다케토라의 저서 속에 그 필자가 나카노 세이고임을 나타내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5. 쑨원의 ‘아시아주의’를 둘러싸고

쑨원은 1924년 11월 말 고베에 상륙해 ‘대아시아주의’ 강연을 하기에 앞서, 지인 이누카이 쓰요시와 도야마 미쓰루에 회견을 요청했다. 그는 광둥(廣東)에서 제1차 국공합작을 성립시키고는 곧바로 베이징을 향하는 도중이었다. 그는 그때 이전부터 중국혁명의 지원자였던 이누카이 쓰요시[1923

년 아마모토 곤노효에(山本權兵衛) 내각의 체신대신]와 도야마 미쓰루(현양사=대륙
낭인의 총괄자)에게 중국통일을 위한 일본의 협력을 얻어두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다.

중국 통일을 위한 일본 협력이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오쿠마(大隈) 내
각 때 중국에 강요된 제국주의 정책인 ‘대중국 21개조의 요구’(1915)를 철폐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이누카이는 회견을 회피하면서 비서격인 고지마 가즈오(古島
一雄)를 보냈다. 한편 미쓰루는 중국이 금후 “타국의 침략을 받을 걱정”이 없
어진 새벽녘에는 만몽(滿蒙)이나 산둥성(山東省)의 일본 특수권익을 반환하지
만 지금은 아직 안된다며 “국민의 대다수가 승인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회견의 경위를 거치면서 니주로쿠 미네가이시는 「쑨원 군의 미
래와 아세아 운동」에서 격렬하게 이누카이를 비판한다.

…이누카이 보쿠도(犬養木堂=이누카이 쓰요시) 옹과 회견하도록 그 대리인(고지마
가즈오)과 면담하게 하는 것은 옛일을 더듬는 것일 것이다. 애석하게도 묻는다.
오늘날의 이누카이 씨는 오늘날의 쑨원 군과 무엇을 이야기하려 한 것인가.…
쑨원 군은 그 당시 그대로 쑨원 군이다. 이누카이 씨는 이와는 다른 사람이 되
었다. 시베리아 출병에도 동의하고 과격 사상의 침입도 두려워해 종교의 필요
를 설득하고 형편에 따라서는 군벌의 총아[寵倖兒]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를
추대하여 다음의 ‘초연내각’(超然內閣)¹⁰으로라도 만들어보려고 하는 선생이다.
이 선생의 대리인과 회담하여 쑨원 군이 무엇을 얻었던 것이다. 그 장의 분위기
에서 맞장구치는 좌담에 능숙하게 대응하는 이누카이 쪽이 독주하는 무대가 펼
쳐지고, 쑨원 군은 의외로 솔직하게 감탄했을지도 모른다.

니주로쿠 미네가이시는 말한다. 과거 이누카이는 아시아주의자 미야자

10 ‘초연내각’(超然內閣):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초연히 정당 외에 서서’ 정치를 운영하려는 ‘초연’
한 정치 자세를 지닌 내각을 뜻하며 메이지·다이쇼 전기의 내각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키 도텐(宮崎滔天) 등이 품었던 ‘루소식의 시골민권론을 아세아 민족 사이에서 행하려는 이상’ 즉, 아시아주의를 도우려는 정열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시베리아 출병에도 동의하고 군벌의 총아인 다나카 기이치를 세워 ‘초연내각’조차 만들려고 하는, 말하자면 제국주의적 권력 정치가였다. 실로 통렬한 이누카이 비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오가타 다케토라는 『인간 나카노 세이고』에서 이와 완전히 똑같은 문장을 나카노의 ‘아세아 풍운아 쑤원’으로서 인용하고 있다. 결국 니주로쿠 미네가이시란 나카노 세이고 바로 그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구로다(黒田)번의 선원 가정에서 태어나 현양사의 영향 아래 있던 나카노가 같은 구로다번 출신 도야마 미쓰루에 대하여 후하게 평가한 것은 당연하다.] 나카노는 『아관』에 실린 「쑤원 군의 왕래와 아세아 운동」을 후에 그 저서를 펴낼 즈음 「아세아의 풍운아 쑤원」으로 제목을 바꾼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와세다대학 학생 당시부터 혁신구락부의 창립에 이르기까지 이누카이를 정계의 선배로서 존경해 마지않았던 나카노 세이고가 왜 이 논문에서는 예리하게 그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1924년 5월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이누카이가 나카노의 대항마인 미야카와 잇칸(宮川一貫, 우익 흑룡회(黒龍會)계. 나카노와는 후쿠오카(福岡)번의 학교인 수유관(修猷館)의 동기생)의 지지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때 나카노는 2761표 대 2786표라는 겨우 25표차로 가까스로 당선하는 고전을 맛보았다. 그 결과 나카노는 1924년 5월 27일자로 이누카이에게 결별의 편지를 썼다. “선생 직계의 사람들과 이별했노라”고.

이는 쑤원이 고베에 상륙해 강연하기 반년 전의 일이었다. 그 때문에 「쑤원 군의 왕래와 아세아 운동」에 이누카이에 대한 사적인 원망과 같은 감정이 깃들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는 해도 이 논문은 이누카이 비판을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쑤원의 ‘대아시아주의’ 강연에 대한 평가가 골자다. 즉, 여기에 아시아주의자로서의 나카노 세이고의 사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니주로쿠 미네가이시 즉, 나카노 세이고는 여기에 이렇게 썼다.

쑨원 군은 일본의 이른바 대동아주의자와는 입론의 근거를 완전히 달리한다. 일본의 대아세아주의자는 아세아를 연결해 인종적 색채에 의해 백인에 응전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해 백인의 제국주의에 대항해야 한다고, 별개의 제국주의를 고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서 쑨원 군 등은 영미를 패자로 하는 백인의 제국주의에 반항해, 먼저 백인 제국주의의 피해자인 아세아 민족을 연결하고, 다시 백인 중 피해자 측에 있는 러시아, 독일과 연대해 세계적으로 사상을 근거로 하는 해방전쟁을 연출하려는 것이다.

나카노 세이고에 의한 일본의 대아시아주의와 쑨원의 아시아주의와의 대비는 실로 훌륭한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즉 “일본을 중심으로 해 백인의 제국주의에 대항”하려는 일본의 ‘대아세아주의’는 이른바 ‘별개의 제국주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쑨원이 구상하는 ‘대아시아주의’란 ‘백인 제국주의의 피해자’인 ‘아세아 제민족’을 연합시키고, 이것을 백인 중 피해자인 러시아·독일과 연결해 세계의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전쟁’을 기도한다는 것이다.

이 당시 나카노는 러시아 혁명정부(볼셰비키)를 승인하라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훗날 러시아의 비밀 공산당원이라는 의혹으로 회의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 정도이므로 ‘별개의 제국주의’인 일본의 아시아주의에 비판적인 것도 당연했다. 그것보다도 국공합작을 추진하는 쑨원 쪽에 동조적이었다는 것이다.

아시아주의자로서의 나카노 세이고는 쑨원의 ‘대아시아주의’에 동조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쑨원 군 등이 영미 배척, 아세아 연합의 기치를 선명히 내건 것은 그 무렵(워싱턴 군축회의 이후)부터다. 우리는 결코 영미를 배척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배일(排日)이 태평양의 피안으로부터 날아와 만주, 시베리아, 중국 일대에 근거를 마련하고, 영국의 싱가포르 해군 근거지가 사실상 동아(東亞) 대륙에 가하는 위압이 되는 경우에는, 지나 청년의 여론을 아군으로 해 공동의 피(被)위협

자와 나란히 자위책을 강구하는 것은 실로 어쩔 수 없을 따름이다. 그것은 아세아적 신비주의의 발로가 아니며 백인에 대한 편견도 아니다.

만약 이 입장이 관철된다면 나카노 세이고의 아시아주의는 ‘대동아전쟁’ 당시의 ‘일본을 중심으로 해 백인과 같은 제국주의에 대항’하려는 듯한 ‘별개의 제국주의’와 일선을 긋는 것일 터이다.

6. ‘망국의 산하’로서의 아시아

하지만 나카노 세이고는 왜 “영미를 배척하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시아가 연합하여 “위협자”로부터의 “자위책”을 강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따름”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 그는 왜 그와 같은 아시아주의자가 된 것인가? 그것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11년, 이누카이, 도야마와 동행해 신해혁명에 성공하고 중화민국을 수립한 쑨원이나 황싱(黃興) 등을 만났다. 그 뒤 그는 의회정치 공부를 위해 『아사히신문』 기자의 신분으로 영국으로 1년 반의 자비 유학을 떠났다.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 3월의 일이었다.

그런데 고베를 출발해 유럽으로 향하는 길에 들른 아시아 항구가 이미 영국(제국주의)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말라카, 페낭, 콜롬보…, 어느 쪽이나 그렇다. 자신은 아시아의 토지를 밟고 유럽으로 향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들은 모두 영국(제국주의)이 지배하는 영토였다.

이리하여 나카노는 그 유럽을 향한 항해일기[『일본 및 일본인』(日本及び日本人)에 게재]를 ‘망국의 산하’로 명명한 것이다. 그 통절한 한 구절을 들춰본다.

…상해, 홍콩, 싱가포르, 말라카, 페낭으로부터 콜롬보에 이르는 동안 우리는 실로 무엇을 목격했는가. 과거 공자를 배출한 국가의 말로여, 어떤가. 과거 평온한 녹음에 잠긴 말레이인의 현상이여, 어떤가. 과거 석가를 낸 민족의 후예여, 어떤

가. 도상에 차륜의 빠걱거리는 소리가 있고, 차 위에 득의양양한 것은 모두 흰 피부 벽안의 사람이고 차 앞에 채찍을 쥐고 차륜 밑에 먼지로 범벅된 것은 모두 우리이고 이목구비 닮은 유색민이다.

상하이를 위시한 아시아의 항구에서 나카노 세이고가 1915년에 목도한 것은 그보다 반세기 전인 1862년에 다카스기 신사쿠(高杉晋作)가 상하이에 서 본 것과 같이 아시아인이 모두 외국인에 지배되어 사용인이 되어버린 현실이었다. 다른 것은 다카스기의 중국에서의 경험에 나카노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등을 추가했을 뿐인 것이다.

그리하여 다카스기가 서양문명의 빼어남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도 일본은 이러한 서양의 ‘속지(屬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카노는 “금일의 문명세계는 노예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하여 스스로 지탱하지 못하는 국민은 실제 노예 이하의 비경”에 빠지지 않을 수 없으니, 그들의 죄는 단지 “나라가 약한” 것에 있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에 와서 왕년의 양이가(攘夷家)의 대열에 끼여 백인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약한 자의 현상이 그와 같은 것을 설명할 뿐. 설명하면서 스스로 헛되이 분노와 울분에 참을 수 없고 헛되이 동정에 참을 수 없을 뿐. 석가의 가르침을 받들어 살아있는 생물의 육식을 먹지 않는 인도인, 오직 녹음으로 단란해 다툼을 모르는 말레이시아인, 그들은 무슨 죄가 있어 지금과 같은 말로에 이르렀는가. 아아, 그들은 실로 죄 없고, 그들의 죄는 오직 약했다는 것에 있을 뿐... 우리 망국의 산하를 밟고 감개무량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아시아 제국의 ‘망국의 산하’에 대한 현상 인식이 정열가이며 반кол정신의 소유자인 나카노 세이고를 아시아주의자로 만든 것이다. 다만 그 아시아주의는 그가 “그들(아시아인)의 죄는 오직 약했던 것에 있을 뿐”이라는 현실 파악으로부터 판단해 언제나 ‘강한’ 것을 구하는, 말하자면 “(구미와는) 별개의 제국주의” 주장에 도달하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과연 그러한 것인가?

7. ‘대동아전쟁’의 고취까지

『망국의 산하』의 1장인 「싱가포르에서」는 그 영국 식민지(해군 요새)를 연 라폴즈(Raffles, 오늘날의 싱가포르 ‘라폴즈호텔’ 이름의 유래)를 언급한 다음과 같은 일절이 있다.

시키시마(數島)의 아마토 남자는 싱가포르의 부두에서 스탬포드 라폴즈(T. Stamford Raffles)의 동상을 우러르며 결코 앵글로색슨을 동경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신천지에서 활동해 인도적으로 이인종의 압박을 배척하고 동서의 인종을 같은 수평선상에 세워야 할 사명은 우리의 양 어깨에 달려 있다.

나카노 세이고는 영국 제국주의의 해외 진출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라폴즈의 동상을 보면서 아마토 남자는 그 영국 제국주의의 방향을 향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은 “(구미와는) 별개의 제국주의”를 형성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토 남자(나카노)가 생각하는 방향은 “경제적으로 신천지에 활동”하고 “인도적으로 이인종의 압박을 배척”해 동서 인종을 “같은 수평선상에 세”우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카노의 아시아주의는 원래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연맹, 즉 영국(백인=제국주의)의 지배 하에 두어졌던 상해, 홍콩, 싱가포르 등을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 하로 바꾼다는 종류의 것은 아니다.

거기에 오가타 다케토라가 『인간 나카노 세이고』에서 “국민 대중을 선동해 마침내 대동아전쟁에 이르게 한 것은 실로 나카노 군의 힘이었다고[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의] 비문(碑文)에 있지만, 나는 나카노 군이 도대체 전쟁론자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지금도 의심한다”라고 쓰는 까닭이 있음에 틀림 없다. 다만 나는 이 오가타설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카노가 ‘대동아전쟁’ 개전 직후인 1941년 12월 17일에 행한 연설 「국민은 어떻게 싸워야 할까?」[훗날 도쿠토미 소호와의 대담 「차일전」(此一戰)을 합해 소책자 『차일전』으로 펴낸다]를 읽으면, 나카노가 아시아주의적 사상 위에 제국주의의 문맥을 더해서 전쟁을 고취하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나카노는 영미와의 싸움을 위해 일본이 아시아의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소리 높여 주장했다.

…일본이 이 대동아의 자원을 확보해 주석을, 고무를, 망간을 무한의 식량을 — 조금 더 기다리세요, 설탕과 같이 석유를 (박수) 손에 넣어버리면 장기 전쟁을 언제까지라도 하세요. (박수) 아메리카야말로 일본 때문에 경제 봉쇄를 당해요. (박수) 영국이야말로 일본 때문에 그 병참부를 빼앗깁니다. (박수) 황군이 대동아전쟁의 중요 지점을 점거해 그 안전을 보증한다면 대동아 물자를 개발 동원하는 것은 전망이 서는 것 아닌가요. (박수) 황군은 이미 영령(英領)인 보르네오에 상륙했어요. 그곳에는 석유가 있죠. 네덜란드령 쪽은… 이것은 감자가 구워질 때까지 가만히 쪄 달라 하지요. (웃음소리, 박수)

이와 같은 나카노 세이고의 웅변은 ‘대동아전쟁’ 개전 당시 국민을 흥분시키고 고무시켰음을 알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것은 명확하게 일본 제국주의의 자기주장이다. 그것은 어떻게 읽어도 바야흐로 “(구미와는) 별개의 제국주의”를 형성하는 것처럼 나에게서 생각된다. 과거의 아시아주의자는 변절한 것일까. 그러나 지금은 아시아주의자로서의 나카노 세이고의 원상이 1915년 유럽을 향하는 항해 중에 굳어진 것을 우리들은 확인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아시아주의자가 1924년에 쑨원의 강연을 들었을 때 빛과 열을 내면서 ‘별개의 제국주의’로서의 일본의 ‘대아세아주의’ 비판으로 향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대동아전쟁’을 고취하는 아시아주의자·나카노 세이고 자신을 향한 비판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 글의 원문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권정희(도쿄대학 박사/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한일근대문학, 비교문학, 비교문화 전공)가 번역했다.